

지방자치·종합

김정은 체제 개성공단은 지금

北 근로자 의료지원 다녀온 서정성 원장

■ 국감브리핑

남-북 진료소간 이동 문 폐쇄 경색 반영

남·북의료진 협진 중단
북측 검색도 까다로워
공단 일자리창출 긍정적

오랜만에 나서는 방북 길이라 가슴이 설됐다. 2년 8개월 만인 것 같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4~5차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진료료...

다. 예전에는 항상 그랬듯이 짐을 검색하는 북측 직원들을 위한 약간의 선물과 함께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개성관광도 가능했고, 개성공단 출입이 잦았던 만큼 북측 직원들로부터 부탁받은 약품이나 물건들을 조용히 건네주곤 했지만, 이번에는 검색이 상당히 강화됐다.

예전엔 북측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남측 진료소에서 함께 근무했지만, 지금은 남측과 북측 진료소 간 이동 통로 문이 굳게 닫혀 서로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현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적으로 평가하지만, 3단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1단계의 40% 정도 밖에 진척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표기했다.



지난 3일 의약품 지원을 위해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선한의료인 관계자들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의약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경의선 열차를 탈 때마다 하는 기대긴 하지만, 이 열차가 하루빨리 북녘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 대륙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 6억5000만원 편성
국내외 방송·일간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광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집행되면 이는 우리 정부가 하는 사상 첫 독도 광고가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사업으로 독도 광고 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사와 컨설팅 업체, 다큐멘터리 제작사 등을 통해 독도 이미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한 뒤 국내외의 주요 방송·일간지를 통해 광고하겠다는 것이다.

광고 예산을 편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광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접박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집행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친환경 인증 위반업체 처벌 솥방망이 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관 단립과 수박결합기 검사로 부실 인증의 우려가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한 '솥방망이처벌'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1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능가가 임의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대상능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동포단체 보조금 중복·편법지급 수두룩 김성근 의원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재외동포사회 내 상호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돼야 하는 '동포단체보조금'이 기준도 없이 공관장 삼짓둔처형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962달러를 지급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7월에 59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의 액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때에는 재외공관장은 미리 재외동포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2999달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재보궐선거 비용 10년간 2천억 김기선 의원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지자체가 지출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모두 1845억 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의원 선거에 329억원, 기초의원 선거에 376억원이 사용되는 등 모두 2000억원에 육박했다.

치러질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약 1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선거비용 부담은 얼얼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중도사직자 등에게도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한인과 남북통일'

오늘 전남대서 포럼

전남대 아태지역연구소와 재외한인회회는 제6회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광주 북구 전남대 사회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세계 한인과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연다. 통일부와 전국대학동문문제연구소협의회 지원으로 열리는 이 포럼은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한인들이 경색 일로인 남북관계를 푸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럼에서는 '남북통일과 세계한민족네트워크의 역할'(김재기 전남대 교수), '차세대 한민족의 통일외교와 정책'('장운수 전남대 교수), '재일총련과 북한관계'(임영연 원주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public notices, and services. Includes sections like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탑공인중개사', '금당 공인중개사', '신한공인중개사',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인등심일부동산', and '광문공인중개사'.